

시립미술관의 만형...아카이브·도시재생 공공기능 확장

관주시립미술관 개관 25주년 기획 공립 미술관의 길을 묻다

〈3〉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전 지역 미술관화’ 목표
수많은 분관·산하시설 개설

르누아르전·까르띠에전...

매년 블록버스터급 기획 전시

소장작품 4500점 자치구 대역도



고흥 출신 천경화 화백의 대표작 ‘내 슬픈 전설의 22페이지’(사진 왼쪽 작품) 등을 상설 전시하고 있는 서울시립미술관 2층 ‘영원한 나르시시스트, 천경자’ 상설전시실.

〈서울시립미술관 제공〉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외관과 입구 앞에 설치된 이우현 작가의 ‘항(項)-대화’.



질병관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청의 옛 시약창고를 활용한 ‘세마창고’.

미술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전시다. 유명 작가부터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신진 작가까지 다양한 미술인들이 전시를 통해 다양한 이야기를 전달한다. 공립미술관들은 한발짝 더 나아가 근 10년 사이 교육·아카이브·연구 등 공공적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여기에 서울시립미술관(관장 최효준·SeMA)은 서울시와 연계해 도시디자인 분야도 함께 연구하고 있다. 미술관의 역할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한 결과다.

광주시립미술관보다 4년 먼저 생긴 서울시립미술관은 시립미술관 중에서 가장 만형이다. 88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옛 서울고등학교 건물을 개관한 이래 2002년 서울시 중구 서소문 옛 대법원(등록문화재 제 237호) 자리로 이전하며 지하 2층, 지상 3층 1만3433㎡ 규모를 갖췄다.

또 ‘전 지역의 미술관화’라는 서울시 방침에 따라 다수의 분관과 산하 시설을 두고 있다. 2004년 관악구 남현동 상당역 인근에 남서울 분관, 2013년에 노원구 중계동에 북서울 분관을 설립했다. 내년에는 종로구 평창동 복합 미술시설을 비롯해 도봉구 창동의 사진미술관(2020년), 금천구 독산동의 서서울미술관(2021년) 건립을 준비 중이다.

지난 9월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에서 만난 백기영 학예연구부장은 “서울시립미술관은 공간 아카이브 작업에 치중하고 있으며 건축가들과 함께 서울 도시 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술관에서는 지난 9월3일~10일 개최됐던 ‘UIA 2017 서울세계건축대회’ 기념전으로 ‘자율진화도시’전이 11월12일까지 열린다. 건축을 개발이 아닌 미술의 범위로 보는 전시다. 도시를 단순히 사람과 건물이 모인 공간으로 규정하기 보다는 하나의 생명체로 보고 스스로 진화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전시는 1392년 한양 도성 시기의 전통 건축물부터 1960년 서울 강남, 2000년대 신도시인 송도시와 세종시를 비롯해 예술적으로 승화된 미래도시를 선보인다.

서울을 건축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이번 전시는 그동안 옛 공간을 미술로서 재생시킨 미술관의 행보와 연관이 깊다.

2006년 개관하고 2013년부터 국제레지던시로 운영되고 있는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는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난지습지도의 침출수처리시설을 개조한 공간이다. 25개 스튜디오·숙소에 신진 작가들이 머물며 작업하고 있다.

또 곧 문을 여는 전시장 ‘세마창고’도 눈길을 끈다. 2005년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건립공사 당시 옛 중소기업 전시장 앞 도로 지하에서 발견된 방벽은 면적 957㎡ 규모로, 화장실과 샤워실, 기계실 등을 갖추고 있다.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박정희 정권 시절 만들어진 대통령 경호 시설로 추정되고 있다. 이후 10여년 간 활용 방안을 고민하던 서울시는 과감하게 미술인들에 방벽 공간을 제공하기로 결정한다. 이달 안 개관을 목표로 리모델링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지난해 8월 개관한 ‘세마창고’도 서울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대안공간이다. 1960년대 건립된 질병관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청의 옛 시약창고로 사용되던 490㎡ 규모 건물이다. 원래 철거가 예정돼 있었지만 역사와 흔적을 최대한 보존하자는 서울시 방침에 따라 신진작가와 기획자들을 위한 예술공간으로 리모델링해 서울시립미술관이 운영을 맡고 있다. 지난 9월에는 시약 선반을 활용한 작품 전시·판매 행사 ‘표본창고’가 진행되는 등 질병과 의학, 동물 실험이 이뤄졌던 장소 특성에 따라 예술가들은 상상력을 실현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지난 3월 종로구 창신동 백남준 옛 집터에 문을 연 ‘백남준 기념관’은 서울시립미술관이 맡은 대표적 도시 재생사례다. 창신동은 백남준이 1937년부터 1950년까지 성장기를 보낸 곳이다. 백기영 부장은 그동안 백남준이 해외활동만 주목받았다면 ‘백남준 기념관’에서는 주민들에 의해 백남준에 대해 미처 몰랐던 사실들을 발굴했다고 설명했다. 유년시절 읽었던 책, 만난 사람들이 주민들에 의해 알려지며 백남준 작품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다.

다양한 실험적 공간은 미술관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서울시립미술관은 신진미술인 16명을 선정해 전시지원금 1300만원과 함께 본전시회에 참여 기회를 주고 있다.

건축 아카이브는 오는 11월12일까지 3층 프로젝트갤러리에서 열리는 ‘역사풍경 : 서소문37번지’전에서도 볼 수 있다. 육영공원, 독일공사관, 토지조사국, 경성재판소 등 서소문동 37번지 일대를 재조명한 전시다. 일제강점기, 군사정권 등 현대예술가들이 어두웠던 과거를 직시하며 관람객들과 함께 미래를 논하는 자리다.

미술관 본연의 목적인 전시도 소홀히 하고 있지 않다. 특징이 있다면 르누아르전, 까르띠에전 등 기존에는 블록버스터 전시를 열어 관람객 수를 확보했다면 지금은 우리나라와 세계의 담론을 다루는 전시를 기획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술관 2층에서 열리는 ‘불협화음의 기술 : 다름과 함께 하기’는 2017~2018 한·영 상호교류의 해를 맞아 영국문화원 소장품을 소개하고 있다.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영국에서 일어난 사회·정치·문화적 이슈들을 배경으로 한 작품들이 주로 전시되고 있다. 브렉시트, 난민, 경제 불황, 종교 갈등 등을 영상·사진·회화·설치 등으로 볼 수 있다.

올해 말에는 라틴 아메리카 주제 전시가 예정돼 있다. 2층에 따로 공간을 마련해 고흥 출신(고) 천경자 화백을 조명하는 ‘영원한 나르시시스트, 천경자’전을 상설 운영하고 있으며 가나아트갤러리가 기증한 민중미술작품 200여점, 작가 기증작들도 바뀌며 전시하고 있다.

미술관은 서울 자치구 청사 내 전시 큐레이터 역할도 하고 있다. 현재 미술관이 소장한 작품 4500여점을 각 자치구에 대역도 주고 있다. 미술관은 매년 작품 200여점을 구입하고 있으며 기존에는 회화 위주에서 최근에는 설치, 미디어아트 등 현대미술 작품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미술평론상도 운영하며 그해 가장 인상적인 미술 평론가 2명을 선정해 각 1000만원씩 상금을 수여하고 있다. 이름을 가린채 오직 평론글만 평가하는 블라인드 심사기 특징이다.

김정희기자 kimyh@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자연의 소리... 국제보청기

신양파크호텔 가을여행

기간·9월 1일~11월 30일 객실예약 ☎ 228-8000

가을 패키지
스탠다드룸 ₩100,000 / 디럭스룸 ₩110,000
객실박 + 조식인 + 사우나인 (조식인 추가시, ₩15,000)